

# 여름철 사양관리



이 중 해

여름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사슴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낮에는 활동량을 줄이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녘이나 저녁무렵에 주로 활동한다. 또한 사료섭취량도 그림 1에서 보듯이 기온이 30℃를 넘어가는 오후에는 많이 떨어지게 되며 특히 하루중 가장 더운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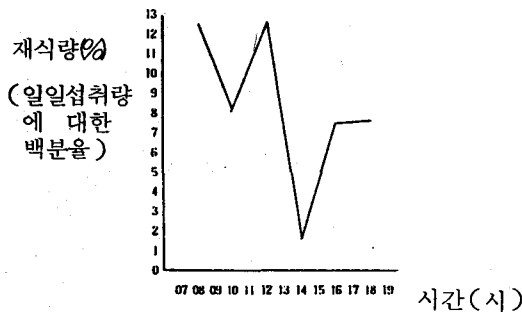


그림 1. 꽃사슴의 여름철 시간별 조사료 채식성 (8월)

극히 소량의 사료만을 섭취한다. 그후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부터 활동량과 더불어 사료섭취량도 증가하여 오후 7시부터 오전 6까지의 저녁과 밤에 하루 채식량의 약 40%를 섭취한다.

장마기인 7월부터 8월까지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사육장내 특히 사료통 주위나 물이 고이는 곳에는 세균이 오염되기 쉬우므로 사료 급여 시 사료통 주위의 먹고 남은 찌꺼기는 깨끗이 치어주어야 하고 사육장내의 배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한 낮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사슴은 급수통에 발을 담그거나 물을 튀겨서 체온을 식히므로 급수통내의 물이 더러워지고, 여름철에는 기후조건에 의해 물이 쉽게 상하므로

물을 자주 갈아주어 세균의 오염을 막아주어야 한다. 또, 사슴은 소에 비해 반추기능이 약하므로 고온다습한 이 기간동안에는 배합사료는 제조일자가 많이 경과하면 부패하게 되는데 약간이라도 부패된 사료를 사슴에게 급여하면 설사를 하고 심하면 폐사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이와같은 부패된 사료의 섭취로 인해 설사를 하게 되면 발견 즉시 설파제를 투여해 주면 치료가 가능하다.

사슴의 체중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듯이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의 기간에는 숫사슴들은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가는 기간으로 이것은 발정기 동안의 많은 에너지 소비와 영양공급이 원활치 못한 겨울철에 대비해 초여름부터 많은 사료를 섭취하여 체내에 양분을 비축하기 때문이다. 또 발정기가 시작되면 숫사슴들은 채식량이 급속히 감소하므로 발정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숫사슴들에게는 충분한 사료를 급여해 주어야 한다. 만일 이기간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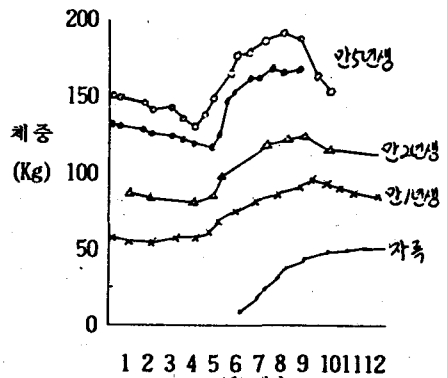


그림 2. 레드디어 숫컷의 계절별 체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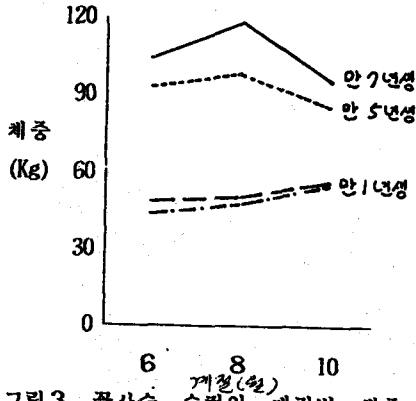


그림 3. 꽃사슴 숫컷의 계절별 체중 변화.

영양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발정기와 겨울철의 체내에 비축된 이상의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영양부족으로 그 다음해의 녹용생산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9월이 되면 발정기가 시작되는데 미리 체형, 녹용생산량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하여 암사슴과 합사시켜 주어야 하며 다른 숫사슴들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각 다른 칸에 격리시켜야 한다. 발정기가 시작되면 숫사슴들은 성격이 포악해져서 사육사에게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므로 사육사는 주의해야 한다. 양록선진국인 뉴질랜드에서도 발정기동안의 숫사슴의 난폭한 성질에 대해서는 사육사가 주의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암사슴에 있어서 여름철은 포유기간으로 표 1과 같이 사슴젖은 소나 양의 젖에 비해 상당히 많은 지방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즉 포유중인 암사슴은 많은 양의 양분을 젖으로 배출하므로 포유기 동안에는 암사슴에게 평상시 급여하던 사료외에 콩등을 섞어줌으로서 젖으로 배출되는 영양분을 보충시켜 주어야 한다. 그로인해 자록의 영양발육에도 도움을 주며 어미의 발정시기도 앞당겨지게 된다.

표 1. 여러 반추가축의 비유중기의 유성분(%)과 에너지함량(Kcal/g) 비교

종 류	수 분	지 방	단백질	당분	회분	에너지
검은꼬리사슴	-	12.6	7.2	4.8	1.4	1.76
소	87.6	3.7	3.2	4.6	0.7	0.71
산 양	88.0	3.8	2.9	4.7	0.8	0.69
면 양	81.8	7.1	5.0	4.9	0.8	1.12
엘 크	81.0	6.7	5.7	4.2	1.3	1.10
무 스	78.5	10.0	8.4	3.0	1.5	1.51
레드디어	78.9	8.5	7.1	4.5	1.4	1.37
순 록	73.7	10.9	9.5	3.4	1.3	1.66
흰 꼬리사슴	77.5	7.7	8.2	4.6	1.5	1.35

자록은 생후 2~3주경이 되면 사료를 먹기 시작하고 성록과 같은 펠렛형의 똥을 누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새끼사슴의 반추위는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보통 면양이나 산양은 생후 8주경에 성숙된 반추위로 발달하고 소는 5~6개월이 걸리며 사슴은 생후 3~4개월이 지나야 성록과 같은 반추위로 발달된다. 그러므로 자록의 이유시기는 최소한 3개월령은 되어야 하며 3개월반~4개월이 가장 좋다. 이와 같이 100일이 넘는 포유기간으로 인해 어미의 발정시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으나 사슴은 계절번식동물이고 또 앞에서와 같이 포유중인 암사슴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면 발정시기 다시 말하면 다음해의 분만시기는 앞당겨지기도 늦추어지는 않는다. 만일 새끼사슴이 생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유를 시키면 어미의 발정은 약간 앞당겨질지는 모르나 새끼의 발육에 지장을 주게 되어 경제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가져

오게 된다.

포유중인 자육을 어미들과 같은 사육칸에 놔 두게 되면 새끼들은 어미들에게 밀려 어미들이 먹고 남은 사료만을 먹게되어 성장에 지장을 주게되므로 새끼 사슴이 생후 2~3주경이 되어 사료를 먹을 때가 되면 어미 사육장 옆에 새끼들만 들어갈 수 있게 출입구를 낮고 좁게 하여 새끼칸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새끼칸에는 양질의 조사료와 어린송아지용 배합사료를 항상 부족하지 않게 급여해 주어야 한다.

8월경 사슴의 분만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면 사슴장내의 모든 사슴에 대해 구충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구충제는 소에게 사용하는

구충제를 사용하면 된다.

각 농가에서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겨울철에 대비한 건초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건초로는 떡갈나무, 아카시아, 산야초등이 이용된다. 조사료의 영양가만을 따진다면 6~7월에 건초를 만드는 것이 좋으나 이 시기에는 조사료내에 수분 함량이 높고 우기인 관계로 건초제조가 용이치 않으며 7~8월경의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하에서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8월 초순부터 9월 사이에 건초를 제조하는 것이 좋다. ☆

(청원사슴농장)

### ◎ 구좌변경 안내

본회 거래은행이 다음과 같이 변경됐으므로 이용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우체국 온라인 013383 - 0007344 한국양육협회 (사료대금용)

국민은행온라인 059 - 24 - 0109 - 266 허 빈 (회비용)

### ◎ 회비납입 안내

1989년도 회원의 년회비와 임원회비 미납은 9월말까지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도 회비조정액

회비구분	금 액	꽃 사 슴	레드디아	엘 크	비 고
부 업 형	30,000 원	30 두이내	10 두이내	5 두이내	품종별로 각각부담
전 업 형	50,000 원	30 -100두	11-30 두	6 -15 두	"
기 업 형	100,000 원	100 두이상	31 두이상	16 두이상	"